

전남 셋째 이상 출생아 수 감소...다자녀 가정 지원 강화해야

셋째 12.7% 늘었지만 셋째 출생아 전년보다 8.9% ↓
전남형 다자녀 지원 특화 위한 세밀한 분석·연구 필요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7년째 '한 명'도 채 되지 않는 저출생과 인구소멸이 심화하는 가운데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9일 전남 22개 시·군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지역 셋째 이상 출생아 수는 830명으로, 전년(911명)보다 8.9% (81명) 감소했다. 이는 자치단체의 출산 지원금 지급 현황 자료 등을 바탕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전남지역 셋째 출생아 수는 3724명에서 4197명으로 12.7% (473명) 늘었지만, 둘째아이는 3.8% (2819명→2685명) 줄었다. 셋째 출생아 수는 2022년 758명에서 지난해 691명으로, 8.8% (-67명) 감소했다. 출생아 감소율은 넷째아, 다섯째아, 여섯째아 등으로 늘어갈수록 높아졌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1년 새 셋째 이상 출생아 수가 줄어든 지역은 14곳에 달했다.

구례 셋째 이상 출생아는 21명에서 8명으로, 61.9% 줄며 가장 큰 감소율을 나타냈다. 이어 보성 50% (16명→8명), 진도 47.1% (17명→9명), 함평 38.1% (21명→13명), 화순 28.6% (28명→20명) 등 순으로 감소율이 높았다.

순천과 목포, 여수 등 시(市) 지역도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 순천 셋째 이상 출생아는 146명에서 121명

으로 17.1% (-25명) 줄었고, 목포 17.3% (81명→67명), 여수 11.9% (109명→96명) 등을 감소율을 나타냈다. 강진(14명→18명)과 광양(62명→78명), 고흥(20명→25명), 나주(80명→88명), 영암(29명→30명) 등 5개 시·군만 셋째 이상 출생아가 전년보다 늘었다.

그동안 다둥이는 다복(多福)의 상징으로 여겨졌지만, 부양 부담 때문에 '한 명 낳아 키우기도 버겁다'는 가정이 늘고 있다.

지난 2022년에는 순천과 화순, 진도에서 일곱째 아가 태어났지만, 이듬해 이들 지역에서는 일곱째 아 탄생을 볼 수 없었다.

전남도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다자녀 기준을 두 자녀로 개정해 관련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전남도와 각 시·군은 사업비 1억원을 들여 다자녀 행복카드 가맹점 1200곳을 대상으로 카드 수수료를 감면할 방침이다.

자치단체는 수백만원부터 수천만원에 달하는 출산지원금 지급 외에도 지역 실정에 맞는 다자녀 출산 장려 시책을 펼치고 있다.

나주시는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상수도 요금 30%를 감면해주고,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서는 네 살이 되는 해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매달 1인당 5만

원의 보육시설 교육비를 지급하고 있다. 광양시는 두 자녀 출산 가정에 100만원에 달하는 지역화폐를 두 차례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함평군은 세 자녀 이상 가정에 5인 이상 승용차 구입비 300만원을 지원하는 '다자녀 가정 이동편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둘째 이상 낳으면 카시트 등 4종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는 '더(The) 행복함'을 준다.

여수시는 다자녀 가정 영유아에 영양제를 추가 지원하고, 셋째 이상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의 20%를 감면한다.

순천시는 지역기업과 다둥이 가정을 일대일 연결해 매달 10만원을 지원하는 '지역기업 다둥이 꿈 키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장흥군은 셋째 이상 2-6세 영유아 가정에 병원비를 최대 50만원 지원하고, 진도군은 '다둥이 가정 축하물품'과 '유산균·아토피 화장품 등 해피박스 지원' (둘째 이상) 사업을 벌이고 있다. 담양군은 영유아 안전장비 구입비로 둘째 15만원, 셋째 30만원, 넷째 이상 50만원 등을 지급하고 있다.

이 밖에도 여수시·담양군 '다자녀 기저귀 지원', 순천시 '세 자녀 이상 한방정약 지원' (40만원 상당) 등도 있다.

구례에서 네 자녀 가정을 꾸린 조창근(46)·김슬지(37)씨 부부는 "일과를 마친 뒤 아이들과 산책하는 소소한 행복을 누리고 있다"면서도 "감당하기 힘든 보육비용과 사교육비, 턱없이 부족한 의료 기반



구례군에서 네 자녀 다둥이 가정을 꾸린 조창근(46)·김슬지(37)씨 부부가 유하(왼쪽부터), 용훈, 서준, 예주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조창근씨 제공>

시설 때문에 다섯째 출산은 망설여진다"고 말했다.

조씨 부부는 "세 살배기 아들이 다쳤을 때 공성은 물론 순천에서도 마땅한 의료기관을 찾지 못해 전주까지 가서 치료를 받은 악몽이 생생하다"며 "현금성 지원보다는 아이를 안전하게 낳고 기를 수 있는 산부인과와 소아과 병원을 마련하고, 급할 때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보육 여건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민 전남연구원 박사(부연구위원)는 "전남에

서는 학원비의 10%를 깎아주는 '다자녀 행복카드'와 육아용품 구입비 50만원 지원, 주택 대출이자 일부 지원,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 다자녀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면서도 "2008년부터 시행한 '다자녀 행복카드'는 지원의 효과성을 평가할 시기가 됐으며, 전남형 다자녀 지원을 특화하기 위한 세밀한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다. 전남은 다른 지원사업에 비해 다자녀 지원 시책은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 동구청이 뉴진스 데뷔 2주년 파티 여는 까닭은?

충장로 활성화·스타거리 홍보
'K-POP 공유카페' 오픈 첫 행사
19~22일 포토카드·키링 등 추첨

광주시 동구가 충장로 도심에서 걸그룹 '뉴진스(Newjeans·사진)'의 데뷔 2주년을 축하하는 파티를 연다.

동구는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광주시 동구 충장로 'K-POP 공유카페'에서 '뉴진스 2주년 축하 카페'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2022년 데뷔한 뉴진스는 '어텐션' (Attention), '하이 보이' (Hype Boy), '디토' (Ditto), 'OMG'에 이어 최근 '하루 스위트' (How Sweet) 등 발표한 노래마다 선풍적 인기를 끄는 K-POP 대표 걸그룹이다.

행사는 뉴진스 데뷔일(7월 22일)에 맞춰 '생일 카페' 형식으로 열린다. 생일 카페는 아이돌 멤버의 생일에 맞춰 카페를 빌려 생일파티를 여는 팬 문화다.

동구는 이례적으로 뉴진스 팬들에게 행사를 위해 'K-POP 공유카페'를 제공하기로 했다. 운영 시간은 낮 12시~오후 7시이며, 시간별로 정원 20명만 입장할 수 있다. 입장은 예약제 10



뉴진스 2주년 데뷔 파티

명과 현장 방문 10명으로 제한한다.

카페 내에는 뉴진스 관련 각종 사진·영상 전시가 돼 있으며 뮤직 비디오킷감상실, 인생 네컷, 포토존 등도 마련돼 있다.

참가자들은 기본 특전으로 종이컵과 포토카드, 엽서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사전 예약자는 포스터, 컵, 아크릴 키링 등 굿즈 받기 추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동구는 광주관광공사와 연계해 다양한 현장 이벤트도 진행한다. 카페 인근 'K-POP 스타의 거리'에서 뉴진스와 관련된 물건과 함께 '예절

샷'을 찍거나 멤버별 취미를 따라하는 '인증샷'을 SNS에 업로드하면 뉴진스와 관련된 토기 부채 또는 오메나(광주시 마스코트) 부채를 받을 수 있다.

이벤트 참여자 중에는 추첨을 통해 뉴진스의 신규앨범, 빙키봉(응원봉), 스노우볼, 필름카메라 등 특전도 받을 수 있다.

동구는 충장상권리태상(상권활성화) 사업을 통해 'K-POP 공유카페'를 새로 오픈하면서 첫 행사로 뉴진스 축하 카페를 열기로 했다. 충장로 방문객 유입 효과를 늘리고 K-POP 스타의 거리를 홍보하기 위해서다.

공유카페는 충장로 'K-POP 스타의 거리'와 연계해 K-POP 팬들이 매달 각기 다른 아티스트의 생일 또는 기념일에 자유롭게 카페 공간을 대관해 팬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뉴진스 2주년 축하 카페 사전 예약은 오는 12일부터 진행되며, 트위터(@star_n_me)와 인스타그램(@between_star.and.me)을 통해 할 수 있다.

입력 동구청장은 "K-POP 공유카페가 충장로를 방문하는 하나의 계기가 돼 지역상권이 다시 활력을 되찾길 기대한다"면서 "충장로 활성화화를 위해 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39년 역사 PC통신 '천리안' 추억 속으로

10월 말 서비스 종료
1980년대 PC통신의 후신인 포털 서비스 '천리안'이 오는 10월 말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9일 ICT업체에 따르면 천리안 운영사 미디어로그는 최근 게시한 공지에서 오는 10월 31일 천리안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미디어로그는 "함께했던 포털 서비스들이 하나, 둘 종료하는 시장 상황에서도 서비스를 지속하고자 노력했지만, 사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 양질의 메일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려워 서비스 종료라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천리안은 오는 11일 메일/주소록 백업 기능을 오

픈한 뒤 메일 자동전달/메일주소 변경 안내 신청을 받아 이용자의 자료 저장과 이메일 이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후 다음달 1일 천리안 기본료를 무료로 전환하고 9월 1일 문자메시지(SMS), 뉴스(동영상), 인물/운세 등 부가 서비스 종료, 10월 1일 천리안 메일 수·발신 중지를 거쳐 10월 31일 서비스를 완전히 종료한다. 이로써 천리안은 1985년 PC통신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39년만에 추억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하이텔과 나누어리는 이미 각각 2007년과 2012년 서비스를 중단해 천리안이 10월 말 서비스를 종료하면 3대 PC통신 모두 명맥이 끊긴다. /연합뉴스

대학캠퍼스 내 도로 관리 강화...총장에 '안전관리' 의무 부과

교통사고 사각지대로 꼽히는 대학 캠퍼스에서의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캠퍼스 내 도로 관리가 강화된다.

국도교통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교통안전법이 오는 8월 17일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교통안전법이 적용되는 '단지 내 도로'에 대해(전단, 교육대, 사이버대 등 포

함) 내 도로를 포함하고, 설치·관리 주체를 학교의 장(총장)으로 정했다. 특히 총장에게 ▲ 캠퍼스 내 자동차 통행 방법을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도록 하고 ▲ 교통안전 시설물을 마련하며 ▲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 교통 안전관리의 의무를 부과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된다. 관할 지자체장은 대학 내 교통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연합뉴스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권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분할합병공고

(채권자 이외의 주권채출공고)

주식회사 영남제이더라이빙(이하 '갑'이라 함)과 동일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는 각각 2024년 07월 09일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합병 제3303호(9)규약 제4항 '갑'의 그 재산(영입)의 일부인 전기공사사업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을'이 합병하고 '갑'은 존속하기로 하였으며 '갑'의 분할된 전기공사사업의 재산 부채 등 '갑'의 전기공사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을'이 승계하며 합병제 5303호(9) 규약의 의거 분할된 재산만을 출자금으로 인정하고 '을'은 출자받은 출자재산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으나, 이 분할합병에 의하여 이익이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제정일 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회사에 이의를 제출하고 주주는 주권을 제출하여 주식이 바래야 이익이 없으면 분할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함을 공고 하되 괴합니다.

2024년 7월 10일

1.분할합병대상 : 전기공사사업 (대구-01215.8)

'갑' 주식회사 영남제이더라이빙
대구광역시 북구 노곡길 15-10(학정동)
대표이사 장 경숙

'을' 동일 주식회사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22-1
대표이사 조 태진

분할합병 및 주권채출공고

주식회사 미성산업(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정영전력(이하 '을'이라 한다)은 2024년 7월 9일 개최된 각 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갑'의 재산의 일부인 '전기공사사업'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을'에 합병하고 '갑'은 존속하며 단상번 제3303호(9) 규약에 의거 분할된 재산만을 출자금으로 인정하고 '을'은 출자 받은 출자재산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회사 분할합병에 이익이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제정일로부터 1개월 내에 본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각 사의 주주는 해당사에 주권을 본원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한다.

2024년 7월 10일

'갑' 주식회사 미성산업
광주광역시 광산구 명동로803번길 117-3(4동)
대표이사 정 영호

'을' 주식회사 정영전력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익산대로 123, 2층 (장안동2가)
사내이사 송희연

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1차)

본 회사는 2024년 7월 2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산결의 되었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2024년 9월 10일까지 그 채권 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그 채권은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7월 10일

농업회사법인 원도정우청해원주식회사
전라남도 완도군 군외면 원동1길 63
청산인 최 정우

군산시 수송동 7층 매매

메디컬빌딩
840㎡ 바닥628㎡ 대형건물
약국, 의료기관 4개년주

월 3천4백만원
매가78억

은행 36억5천.보9억4천포함

인수가 32억

010-3646-8700